

도널드 파울러 박사, 구약 배경, 강의 19, 아시리아 제국

© 2024 Don Fowler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Dr. Don Fowler입니다. 세션 19,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우리는 300년 동안 지속된 제국을 갖고 있지만 구약성경 본문에 빛을 비추는 논평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시리아 왕들과 각 왕의 중요한 사건을 통해 우리를 안내하는 고대 역사를 공부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어 성경과 연결되는 아시리아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이 개념, 즉 앗수르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왕이 여러분 주변의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그들에게 주신 경고가 있다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전형적인 예로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은 국제주의자였고 물질주의자였으며 군국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확실히 모세의 율법을 복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아합이 왕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가져야 했던 유일한 것은 그가 형제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실패자였고, 제가 지난 테이프에서 말씀드렸던 세 번의 전투를 본문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아합의 방식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아합의 가족이 앗수르의 가장 인상적인 가족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서부 전체에 있었다.

그들은 앗수르에게 엄청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아합의 정책은 이 세상의 방식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다른 방식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죽음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아합이 전차에서 피를 흘리며 죽는 전사의 죽음을 선택한 것처럼, 사실 그의 진짜 길은 실패였다는 것을 관객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메모에서 Shalman Ezer가 여러 번의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841년에 그는 마침내 통곡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따라서 통곡의 벽은 첫째로 아람인으로 구성되었고, 둘째로 우리가 본 연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레바논 산 앞에서 다메섹 왕 하사엘의 군대를 쳐부수었고, 그 레바논 산은 아마도 헤르몬 산이었을 것이며, 그런 다음 바알이라시 산에 올라 그곳에서 정복당한 자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갈멜 산. 예후가 검은 오벨리스크에 언급되거나 그려져 있는 조공을 바치러 온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예후 왕이라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는 살만 에제르 3세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만 에제르가 그의 내시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왕의 왕국이 얼마나 부유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태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근육질의 사진에서 군사력을 볼 수 있고, 예후가 코를 땅에 대고 복종을 보여주기 위해 살만 에제르 앞에서 땅에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이유 때문에 이것은 영향력 있는 그림입니다.

아합은 앓수르에게 결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합은 죽었을 때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무패로 죽었습니다. 예후야, 아합의 가계를 멸절시킨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기억할 것이다. 당신은 이세벨을 죽게 만든 사람이 예후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후는 갈멜산에서 땅바닥에 코를 대고 있는데, 의심할 바 없이 이 그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사실이 있는지 2,000년이나 3,000년이 지난 후에 예후의 정책이 실제로 효과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데에는 수천 년이 걸린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후는 열렬한 야훼주의자였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코가 땅에 닿았습니다.

그러므로 동시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아합의 길은 통하고 예후의 길은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의 첫

페이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면서 아침 의자의 입장에서 그분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인간일 뿐이고 불완전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841년 이후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졌고, 그래서 살만에셀은 그의 관심을 북쪽으로 돌릴 수 있었고 여기서 그는 그의 관심을 우라르투로 돌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녹색 지역은 우라르투 왕국이고, 아시다시피 앗시리아의 북쪽 국경에 바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앗시리아인들이 축소하고 정복하고 싶어하는 민감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는 북쪽의 우라르투(Urartu)로 관심을 돌렸고 이것은 물론 큰 힘이었습니다.

당시 우라르투는 아시리아인이 가진 가장 강력한 상대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그곳에서 제공한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828년 단 한 번의 원정 끝에 그는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10,000명의 노예와 82,000명의 사망자, 이는 앗시리아 제국이 어느 정도까지 도달했는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엄청난 숫자이며, 이는 세상이 본 적이 없는 전쟁입니다. 그는 양 185,000마리를 포획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하지 않은 것은 우라르투를 완전히 패배시킨 것뿐이다. 828년에는 고대 세계 전체가 붕괴할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였지만 살만에셀은 신문의 첫 페이지를 읽은 만큼 죽었습니다.

828년, 그가 죽기 전, 살만에셀은 우라르투에 막 끔찍한 타격을 가했고, 신문은 의심할 여지 없이 CNN이나 Fox 또는 누군가가 앗시리아의 끔찍한 부상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고 그들은 울었을 것입니다. 치킨 리틀, 하늘이 무너지고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살만에셀이 죽습니다. 그리고 살만에셀이 죽으면 아시리아를 극적으로 약화시키는 큰 반역이 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827년부터 823년까지 발생한 이 대반란은 한 세대 반 동안 아시리아를 불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변경된 것은 Shamshadad V가 자신을 위해 왕좌를 확보한 후에였습니다. 분명히 약해진 아시리아; 이는 아시리아를 약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745년 디글랏-빌레셀 3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는 쇠퇴를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823년부터 745년까지 60년 동안 아시리아는 잠들어 있습니다.

휴면 상태이고 캠페인을 거의 수행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현대 사건에서 우리의 신학을 끌어낸다면, 나는 주변 이웃의 고대 텔레비전에서 설교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앗수르에서 구원하셨다고 세상에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책을 볼 수 있고, 기사를 볼 수 있고, 뉴스 평론가들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앗수르는 여러분이 속한 나라의 신들, 혹은 어느 나라의 신들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그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상상해 보세요. 저와 함께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60년 동안 말 그대로 아무 것도 없었다가 745년이 일어납니다. 745년, 갑자기 디글랏빌레셀 3세라는 아시리아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공교롭게도 아시리아 시대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군사 전사였습니다.

디글랏 빌레셀은 너희가 듣지도 못한 회오리바람처럼 갑자기 터져 나온다. 그리고 20년 후에 디글랏빌레셀은 서부 전체를 거의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삼시아다드는 자신의 동생을 지지하는 29개의 반항적인 도시를 처리해야 했고, 그래서 권력을 놓고 큰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반군은 귀족을 희생시키면서 왕의 권력을 강화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살만에셀은 반군의 지원을 받은 장남의 지원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우리는 내전을 일으켰습니다. 삼시아다드가 승리했지만 내부 긴장은 해결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이 문제는 60년이 지나서야 디글랏-빌레셀 3세의 인물로 해결되었습니다.

테이프를 듣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연대순 메모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다. 내가 설명한 60년의 휴면 기간은 선지자 아모스, 미가, 아마도 요나의 사역을 포괄하는 60년 기간이다. 그들의 저술 사역은 바로 이 앗시리아가 약세를 보인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북쪽 왕국이 그들의 메시지를 거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점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이 와서 그들에게 너희 모두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하는 60년의 휴면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모스가 그 메시지를 전파할 당시에 모든 사람을 포로로 잡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은 일반 청취자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니다.

디글랏-빌레셀 3세 에 의해 고안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아모스의 메시지는 당연히 귀에 들리지 않지만, 아모스와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이 와서 심판을 예언하고 회개했을 때, 그 메시지는 휴면 중에 바로 발생했습니다. 나는 남쪽 왕국에서 강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현 상황에 대한 비극적인 해석이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마도 그의 백성에게 회개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시고 그 후에 북쪽 왕국에 대한 심판을 파멸시키실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압 비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 시기였으며, 아합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모압의 왕 메사가 직접 모압에 이르렀습니다. 그냥 전화해서 보여줘야 할 것 같으니 이 지도를 보면 당연히 사해가 있고, 모압이 바로 여기일 지역이다. 갈릴리와 사해 사이에는 모압 지역이 있는데, 속국에 있던 모압 왕이 정치적 약세를 틈타 북왕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성공했을 때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 비석을 지었다. 미워하던 이스라엘 왕의 권세에서 벗어나 그가 이룬 승리였습니다. 여호람이 전투에서 그들을 물리쳤지만 그들을 진압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모압 돌은 성공적인 반역을 기념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여러분 앞에 도움이 되는 그림인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8세기 히브리어의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오늘날 히브리어 성경을 볼 때 알 수 있는 히브리어와는 같지 않습니다. 훨씬 더 필기체이지만 이것은 히브리어와 매우 가까운 언어인 모압어로 기록되었으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모압 비문이므로 문자를 주목하세요.

이는 8세기에 히브리어를 구성했을 문자와 같은 종류입니다. 여기에서 어둡고 다소 손상되어 보이는 이 섹션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서는 고대부터 약 100년 전까지 보존되었습니다.

100년 전 아우구스투스 클라인(Augustus Klein)이라는 선교사가 이 석판을 발견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물론 1868년에는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급 고고학 학위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고고학은 그가 매우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기 위해 이 사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보존하고 번역한 다음 우리 앞에 있는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은 문서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클라인(Augustus Klein)의 현대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 지역의 마을 사람들은 이 선교사가 이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보고 그 안에 금이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하여 금을 얻기 위해 모압 비석을 깨뜨렸습니다., 금은 없었지만 나중에 재조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 왕들에 맞서 해방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모압어로 쓰여진 매우 중요한 비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약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당시 전쟁 당시 일어났던 끔찍한 군사적 분위기를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어쨌든 우리는 그 60년이 지나면 티글라트-필레세르 3세 시대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는 왕족의 혈통이 아니었고 장군이었습니다. 멸망의 먹구름이 너무 빨리 형성되어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구름이 터지자 앗수르 제국 서부 전체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전 왕조와의 관계는 모호합니다. 성경에서 디글랏빌레셀은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이라고 불리고 빌레셀이라고도 불리며 역대상 5장 26절에서는 불엔, 디글랏빌레셀이라고 불립니다. Pileser는 아마도 그의 이름의 철자가 틀린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왕 중 가장 위대한 이 왕은 이전에는 거의 없었던 것처럼 군사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는 먼저 바빌론 남쪽에 아시리아의 지배권을 다시 확립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상대인 우라르투를 공격했다. 그는 남쪽과 북쪽 측면을 모두 장악한 후 서쪽으로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이 서쪽에 나타난 지 60년이 지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지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앗시리아가 단지 악몽일 뿐이고 그로부터 깨어났다고 생각했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니, 그것은 악몽이 아니었고 계속되어야 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독립해 있던 서부 지류를 다시 제압하기 위해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상대는 아르파드의 마티일루(Mati'ilu)가 이끄는 신히타이트와 아람인의 연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티일루 조약의 저주 공식이 이사야 34장 및 스바냐 2장과 매우 유사하다는 유명한 세파이어 비문을 살펴보세요. 이 세력은 분명히 우라르티아 왕 사르두 3세의 속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Sardu가 Tiglath-Pileser를 막으려고 했을 때 그들은 전투에서 만났고 Sardu는 간신히 목숨을 걸고 탈출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해에는 북부 시리아와 페니키아 전체가 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단 2년 만에 743년에 디글랏-빌레셀은 이스라엘까지 침투하여 이스라엘 왕 므나헴으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공은 은 천 달란트로 아주 많은 액수였습니다. 은 천 달란트는 전례 없는 액수는 아니지만, 북왕국만큼 작은 나라에게는 금전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마도 이것은 메나헴이 그토록 인기가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불과 2년 만에 암살당했다. 이는 아마도 그가 북왕국에 기꺼이 복종하려는 의지로 인해 인기를 얻지 못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강단이 신문의 첫 페이지에서 므나헴과 같은 말을 읽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에 우리를 그에게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카르카르에서 그를 패배시켰고, 849년, 848년, 845년, 841년에도 그를 패배시켰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그를 암살했고, 그를 따르는 페카는 다메섹 왕 르신과 동맹을 맺는 등 강력한 반앗시리아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아람인에 대해 여기로 가리키도록 합시다. 전에도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다마스쿠스이므로 여기에는 아람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은 아합 시대와 마찬가지로 앗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페카와 라잔은 유다 왕 아하스를 강제로 반란에 가담시키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디글랏-레제르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아하스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요청은 너무나 빨리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 아하스가 유다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는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연합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하스는 앞서 나가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이웃의 폭력적인 핏불을 점심 식사에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메인 코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734년에 디글랏-빌레셀은 서쪽으로 와서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여 반란에 대한 이집트의 지원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다가 733년에 그는 이스라엘로 진군하여 북쪽에 있는 갈릴리의 많은 부분을 황폐화시키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메섹이라는 실세에 맞서 움직였습니다.

그는 시골의 대부분을 황폐화시킨 후 다마스쿠스 시를 점령하고 라잔을 왕으로 처형했으며 많은 인구를 추방했습니다. 북쪽 왕국으로 돌아가서 호세아는 베가를 암살하여 그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물론 그 규모가 훨씬 작은 북쪽 왕국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마치 병원 침대에서 암으로 천천히 죽어가는 누군가의 패배하는 싸움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점점 약해진다. 북쪽 왕국은 점점 작아집니다. 따라서 어쨌든 호세아가 다음 왕이고, 731년부터 729년까지 디글랏빌레셀은 아람의 찬탈자를 물리치고 바빌론의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그가 727년에 죽었을 때, 그의 나라의 국경은 예전보다 훨씬 더 넓었습니다. 따라서 Tiglath-Pileser의 추가 항목을 보면 연한 녹색으로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표시된 것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듯이 연한 녹색은 우라르투(Urartu) 지역을 의미합니다.

티글라트-필레세르(Tiglath-Pileser)는 거의 모든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북쪽에 있는 우라르투(Urartu)라는 대왕국을 종식시켰습니다. 그러면 그가 남쪽까지 가는 길을 정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마스쿠스를 파괴했고, 사실상 그는 북쪽 왕국도 통제하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이 지도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더 남쪽으로 녹지를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글랏빌레셀은 아시리아의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아니더라도 가장 위대한 왕 중 하나였습니다. 북쪽의 불쌍한 작은 이스라엘은 그러한 단일체에 맞설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 북쪽 왕국에서 설교단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할 수 있다면 디글랏-빌레셀의 혁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디글랏-빌레셀은 위대한 왕일 뿐만 아니라 제국을 운영하는 데에도 천재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혁신을 살펴볼 예정인데 그 중 행정적, 군사적 혁신이 6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티글라트필레세르는 군사 천재였습니다. 그는 매우 생산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는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는 적의 북쪽, 남쪽, 서쪽 국경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군사적 성취의 문제점은 그것이 짧은 기간 동안만 좋다는 것입니다. Tiglath-Pileser가 생각한 것은 아시리아 제국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을 보장하는 일종의 혁신이었습니다.

그의 혁신에 대해 들어보시도록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그가 행한 첫 번째 혁신은 구역 수를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주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역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시리아를 개별 국가를 가진 국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부 주(州)는 독립해서 국가가 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는 망했지만 적어도 크고 망가진 나라입니다.

글쎄요, 아시리아에는 이 주들에는 강력한 국가들이 있었고 그들은 왕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Tiglath-Pileser는 천재적인 일이 아닐지라도 정말 혁신적인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주의 수를 늘렸습니다.

즉, 그는 캘리포니아 같은 나라를 4~5개의 작은 주로 축소함으로써 왕권에 대한 위협이 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둘째, 남북 전쟁의 진정한 힘은 귀족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들을 주 주지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귀족들이 더 많은 권력을 원했기 때문에 주 총독과 왕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권력을 덜 갖기를 원했습니다. 남북전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Tiglath-Pileser가 한 일은 사실상 더 많은 귀족을 창출함으로써 귀족의 권력 기반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더 많은 귀족이 있다면, 그들은 더 적은 힘을 갖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아시리아인들에게 덜 위협이 될 것이며, 이는 그에게 있어서 매우 밝은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음, Tiglath-Pileser의 세 번째 혁신은 이 제국의 규모에 따른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제국의 규모를 살펴볼 때 몇 가지 비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약 300마일이 됩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Tiglath-Pileser 경계의 윤곽선을 걷기 시작하면 수천 마일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제로 발생한 어떤 사건에 대한 정보를 듣는 데 몇 주가, 문자 그대로 몇 주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왕국의 광대한 국경 어딘가에서 누군가 반란을 일으킨다면, 왕은 늦어도 몇 주까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한 일은 기념비적인 의미를 지닌 일이었습니다. 비록 그에 대해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지만

말입니다. 그가 한 일은 우리가 이 나라에서 포니 익스프레스(Pony Express)라고 부르는 것과 동등한 것을 만든 것입니다.

즉, 왕국 전역에 걸쳐 왕의 신하들이 유인하는 말의 마구간이 있는 행정 중심지를 설립하여, 소식이 필요할 때 한 마구간에서 다음 마구간으로 빠른 말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 그리고 이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그는 왕국 전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아시리아에 반항하려는 사람들이 며칠 안에 그 소식을 니네베와 같은 도시에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의 입장에서 훌륭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의 역할을 말합니다. 우리는 Sardu가 Tiglath-Pileser를 막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어떤 예리한 조언자인지 누가 이것을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Sardu가 Tiglath-Pileser를 막으려고 했다면 그는 그 개념을 발명하지 않았습니. 개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는 Pony Express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행정 개혁은 정복한 영토를 아시리아 제국에 직접 합병한 것입니다.

이제 합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읽고 싶다면 이러한 개혁에 따라 합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상황 목록이 있습니다. 이는 정복당한 세력이 독립성을 상실했다는 뜻이다. 그것은 꼭두각시 정부인 일종의 정부 형태가 허용되었습니다.

실제로 정황을 읽어보면 그들은 정복당하고 주둔하는 영토가 되었고, 정말로 자주적인 자유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합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독립국가였던 것이 기본적으로 적군이 주둔하고, 적의 정치인들이 통치하고, 꼭두각시 정부가 있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아시리아 국가에 반항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임을 보장했습니다. 위에서 다시 살펴보면, 제가 두 가지 군사적 혁신을 제쳐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행정적인 것보다 더 화려합니다.

나는 그것들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티글라트필레저가 한 일은 추방의 개념을 혁신한 것이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한 세기, 아니 한 세기 이상 동안 끊임없는 반란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Tiglath-Pleaser는 제국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를 교육하고 이것이 역사 전반에 걸쳐 어떻게 작용했는지 말해 준 많은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그들이 역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모든 제국에 대해, 그가 본 것은 제국이 문자 그대로 제국의 전체 역사에 대해 연이은 반란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글쎄요, Tiglath-Pleaser는 반란이 일어난 진짜 이유가 사람들이 고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의 상담자들로부터 조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신학적으로 그들의 조국이 그들의 신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곳은 그들의 가족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Tiglath-Pleaser는 끊임없는 반란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단순히 전체 인구를 추방하는 것이라는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받았거나 직접 보았습니다. 그의 수치에 따르면 디글랏-빌레셀 통치 이후 연기가 가라앉았을 때 그는 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고국에서 추방했습니다. 이는 반란을 진압하는 데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는데, 친구, 동맹, 지인 등의 본국 네트워크 없이 외국 땅에 있을 때 반란을 일으키기가 극도로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천재의 일격이었습니다. 전체 인구를 추방함으로써 그는 포로가 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400,000.

우리가 아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왕인 산헤립이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추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산헤립은 이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그는 고국에서 50만 명의 사람들을 추방했습니다.

Busenai Odad는 모든 수치를 기록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약 100년 전 디글랏 빌레셀부터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아시리아인들이 450만 명을 강제 이주시켰다는 것입니다. 앗시리아 제국이

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추방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정복당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그의 마지막 군사 개혁이자 마지막 혁신으로 이어집니다. 즉, 지도로 돌아가서 지도를 보면 아시리아인들이 아마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아시리아 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을지에 대한 통계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수백만 명이었을 것입니다. 음, 앗시리아 자체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크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 엄청난 양의 영토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군대를 충원할 수 있을 만큼 아시리아인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배운 것은 이후의 모든 제국이 따라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왕국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통치할 때, 당신은 당신의 군대를 만들어야 하며, 당신의 군대를 만들고 당신의 제국에서 정복된 사람들로 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Tiglath-Pileser가 한 일은 그토록 천재적인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아시리아 제국, 현재의 아시리아 제국의 군대는 대부분 정복된 영토에서 정복된 군인들로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거의 확실하게 아시리아인의 장교였지만 일반 아시리아 군인은 더 이상 아시리아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수업 중 이 단계에서 한 학생이 제게 묻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했나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이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만약 이들 외국 군대의 반란이 일어난다면 그들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갈 고향이 없습니다. 그들은 쿠데타를 일으킬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외국인의 지휘를 받지 않는 한 그다지 위협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 로마인들이 스페인 군인들과 함께 제국을 정복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과장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지역의

군인들이 국가를 대신하여 싸우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Tiglath-Pileser III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기 내내 계속되었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평소에 성경을 주의깊게 읽지 않기 때문에 잊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 자신도 그의 군대에 외국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의 개인 경호원은 에게해인의 또 다른 용어인 카리테스(Carithites)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자신만의 개인 경호원, 즉 다윗 제국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지키는 군인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의 궁전은 에게인인 외국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군대에는 용병들이 있었습니다.

헛 사람 우리아를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디글랏빌레셀이 생각한 것은 상비군을 비앗시리아 군대의 주력으로 구성하는 것이었다. 아시다시피, 아시리아인들이 한 세기 동안 겪었던 피해는 그들의 사회학을 손상시켰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므로 아다드네라리 시대부터 디글랏빌레셀 시대까지의 기간은 거의 2세기였습니다.

지금은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의 200년 동안 끝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2세기 동안 아시리아 사람들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화를 약화시킵니다.

살해된 아시리아 군인들은 모두 과부와 아마도 아이들을 남겨두고 갔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살핌을 받았나요? 그것은 아시리아의 사회 구조에 대해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정하거나 추측하는 바에 따르면, 2세기에 걸쳐 사상자를 낸 것은 고대 아시리아 사람들의 사회학에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들의 군대에 참모를 둔 군인들에게 사상자 현상을 전가할 수 있지만 그들은 아시리아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수년 동안 군대나 제국을 영속시키는 데 그토록 성공적이었던 이유를 적지 않게 설명합니다. 글썄, 연기가 가라 앉았을 때 Tiglath-Pileser는

기념비적으로 중요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가 이후의 모든 왕들에게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이러한 혁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말기로 갈수록 살만에셀 5세가 다음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팔레스타인에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는 그러한 동맹에 대해 히스기야에게 경고했지만, 북왕국의 왕 호세아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호세아가 더 간절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호세아는 반역했고, 725년에 살만에셀은 두로와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722년 9월에는 함락, 즉 사마리아가 함락되어 28,000명이 그 성읍에서 유배되었다. 다음 왕인 사르곤은 나중에 이 도시를 직접 점령했다고 주장했지만 성서 본문과 바빌로니아 연대기에 따르면 이 도시는 실제로 살만에셀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기가 북왕국의 종말이고, 열 지파의 땅을 잃어버렸는데, 거기에는 아주 작은 무덤 표시만 있을 뿐입니다. 722, 끝났습니다. 열 지파는 영원히 사라진다.

잃어버린 열 지파는 결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삼켜지고, 그렇게 북왕국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르곤은 살만에셀 v를 따랐습니다. 사르곤은 적어도 세 가지 주요 간섭 분야에서 반대를 받았습니다.

나는 엘람인의 간섭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적하려는 것은 아시리아인들이 연합을 통해 그들을 끝내려는 시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르곤 2세의 통치 기간 동안, 그의 통치가 그의 나라 영토가 짙은 녹색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르곤 2세의 통치 기간에 아시리아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가 호를 따라 어떻게 그것을 확장하는지 보세요. 따라서 사르곤은 군사적으로 매우 성공적인 왕이었으며, 따라서 그는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그가 여기 엘람의 엘람인 간섭에 반대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는 엘람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 내 노트에서 언급했습니다. 두르 전투에서 그는 엘람의

훔바니가쉬와 성경에서 므로닥발라단이라고 불리는 마르둑-아플라-이디나를 만났습니다.

전투 결과는 세 참가자 모두의 목록에 나와 있으며 다행히도 아무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므로닥발라단은 11년 동안 바빌론의 왕좌에 계속 머물렀기 때문에 그것은 아시리아의 승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바빌론을 탈환한 것은 708년이 되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엘람인들이 앗수르의 통치를 방해하고 있었는데, 사르곤은 그들을 물리치고 탕자 바벨론을 다시 다스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쪽 간섭에서 Durr 전투 이후 Sargon은 Hammat의 Yabidi가 이끄는 반란에 직면했습니다. 다마스쿠스, 사마리아, 아르파트, 하타리카, 사마리아 등 다양한 도시 국가가 합류합니다.

가장 강력한 군대는 가자 왕과 이집트 군대 사령관의 군대였습니다. 사르곤은 이 전투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사르곤의 세력이 도시가 없는 곳까지 뻗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이시나요? 가자 이외의 남쪽에는 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르곤은 가자에 이르기까지 해안 평야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남부에서의 엄청난 승리입니다. 이 일련의 승리는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우리 노트에서 여러분에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스가랴 9장 1장부터 5장까지의 국가 목록의 원형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712년이 되어서야 사르곤은 다시 서쪽으로 와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스돗이 이끄는 반란을 진압하십시오.

물론 북부 간섭은 Urartu였습니다. 719년부터 18년까지 그는 우라르투로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부분적으로만 성공한 그는 714년에 돌아와 그곳에서 가장 신성한 도시인 무비시르(Mut-bisir)를 점령하고 국가 신인 할디아(Haldia)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언급된 것으로 보이는 무시키 왕 미타에게 계속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도를 보면 사르곤은 모든 사람에게

이혼이 아닌 쓴 이혼의 알약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 약은 이 왕국 전체의 주변 곳곳에서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국의 역학을 이해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청중 모두는 풍선이 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풍선은 터뜨릴 수 있고, 더 커질 수 있고,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풍선에는 한계가 있으며, 터지면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시리아 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은 거침없이 막을 수 없을 것 같고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고대 세계가 붕괴될 날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르곤은 매우 성공한 왕이었으며, 그래서 그는 그의 수도를 역사적인 수도인 아슈르에서 칼락으로 옮겼고, 다시 니네베로 옮기고, 두 르샤루킨으로 옮겼습니다. 공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705년에 에스겔 38장과 39장에 언급된 다발과의 싸움에서 죽었을 때 그의 새 궁전을 거의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대해 요점을 말하자면, 그곳의 모든 나라의 목록에서, 지도는 곡과 마곡을 제외한 모든 마지막 장소가 알려져 있습니다. 곡과 마곡, 내가 마지막으로 세어봤을 때, 곡과 마곡이 누구인지에 대해 13~17개의 서로 다른 추측이 있었지만,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나열된 다른 나라들은 모두 에스겔 세계 지도에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사르곤의 통치는 끝나고 산헤립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산헤립은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할 만한 이름이라. Sennacherib의 SEN은 달의 신 Sene이고, Cherib는 아시다시피 Cherib입니다.

따라서 그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달의 신 세네(Sene)가 케리브(Cherib) 또는 종교적, 신화적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산헤립의 통치에서는 캠페인을 덜 벌이면서 새로운 강조점을 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24년 동안 단 8번의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것은 아시리아 왕들이 기능했던 방식이 아닙니다. 그는 또한 특히 니느웨에 훨씬 더 많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는 먼저 남쪽으로 이동하여 바빌론 왕좌에서 므로닥발라단을 제거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Kassites와 Zagros에 맞서 동쪽으로 이동했으며 Medes로부터 조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의 세 번째 조치이다.

그리고 이 테이프로 끝내기에는 사르곤의 남쪽 왕국 침공을 설명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멈추기에 좋은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여기서 잠시 멈추고 구약 전체의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건 중 하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사르곤이 예루살렘을 침공함.

그리고 우리는 사르곤의 이 혼란스러운 캠페인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면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Dr. Don Fowler입니다. 세션 19, 아시리아 제국입니다.